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목사

“누가복음 7장 1절~10절 강해 설교”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7장 1절~10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210장(새찬송가 421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고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벼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예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 중에 열 두 사도를 택하신 후에 아래로 내려가시다가 각처에서 예수님을 뵈려고 온 무리들이 평평한 장소에 모인 것을 보시고 거기서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활동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을 로마로부터 분할 받아 통치하고 있던 인물은 분봉 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가버나움에는 헤롯의 궁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반란을 곧잘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제국은 그곳에 군단 급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이 로마 군단은 용병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을 지휘하는 장교들은 로마 출신이었습니다. 백부장이란 로마군대의 지휘관으로 백 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장교입니다. 백인대(百人隊 Century)의 지휘관입니다. 열

개의 백인대를 합친 것을 ‘코호르트(Cohort)’라고 부릅니다. 여섯 개의 ‘코호르트’가 모여서 ‘레기온(Legion)’을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레기온’은 약 6천여 명의 병사로 편제되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 로마군대의 중추적인 요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대의 훈련과 검열, 주둔과 전투에 대한 명령 등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평화 시든 전쟁 시에 든 로마군대의 사기는 그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온 사람들을 향해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검을 그 집에 도로 꽂으라 검을 쓰는 자들은 다 검으로 망한다”(마 26:52) 하시며, 이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마 26:53) 하였습니다. 여기에 ‘영’으로 번역된 원어 ‘레기오나스’가 곧 로마의 한 군단을 의미하는 ‘레기온’입니다. 약 6,000명의 보병과 약 120명의 기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백부장에게 총애를 받는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소문을 들은 백부장은 죽을 지경에 있는 그의 종을 살리기 위해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어 그 종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 장로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예수께 보내어 말씀드리기를 “주님,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주께 나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이 낮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저도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하면 옵니다. 또한 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하면 합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고 감탄하시며 그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장면이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찌어다.’ 하시니 백부장의 하인이 곧 나왔다.”라고 묘사하였고, 여기서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언급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는 표현은 더할 수 없는 칭찬입니다.

본문의 장면 묘사는 예수께서 지적하신 ‘이만한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추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재료를 넉넉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지적하신 ‘이만한 믿음’에는 예수님의 신성(神性)을 아는 지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러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였습니다. 박대하고 해치려고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적 활동을 시작하였을 때 고향 나사렛에서 당하신 봉변이 기록된 누가복음 4장을 상기(想起)해 봅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읽고 강

론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19).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모두 감탄하고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멸시하는 태도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와 분위기를 보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신 다음,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던 치료의 능력을 이방인에게 행하였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비교적 호의적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는 무렵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였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합니다.”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서 신성(神性)을 보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하였고, 가버나움의 유대인 장로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백부장이 성경을 접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성경의 예언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본부로 삼아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에 대해 생생한 지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백부장은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과 신성을 지닌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예수께서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백부장은 또한 예수님이 그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공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에 근거하여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께서 지적하신 ‘이만한 믿음’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분리할 수 없음을 아는 지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심하게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같은 것입

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이며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그의 말이 이를 입증하여 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으로 오셔서 종을 치료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를 선포해 주시는 것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경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곧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나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이 거하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로마서 10장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6-10)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거나 음부에 내려가려고 할 것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불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생각해 볼 때 백부장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내 집에 오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백부장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대하여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머물 동안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뵙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께서 지적하신 '이만한 믿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시는 것을 백부장이 사양한 여러 이유들을 생각해 봅시다. ① 예수님에게 결례(缺禮)를 범하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의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는 유대인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것은 크나큰 결례가 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② 백부장의 성품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에는 백부장의 겸손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 로마인 백부장의 위세는 당당하고 대단하였습니다. 백부장이라

는 계급은 세월만 채우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품과 통솔력, 식견과 용맹성 등의 자질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로마의 지배아래 있는 식민지에서의 그들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만한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③ 백부장은 거룩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키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백부장은 "주님,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백부장이 완곡하게 사양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있는 권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였습니다. ①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경험에서 유추하여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를 믿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부하는 지휘관의 권위 아래, 종은 주인의 권위 아래서 오직 복종 외에 달리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②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무슨 치료약을 준다거나 손을 내밀어 만지거나 할 필요가 없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말씀만하시면 충분하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지창조의 기사를 통해 백부장이 이러한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③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거센 풍파를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④ 병든 자를 위하여 나왔다고 말씀하시면 즉시 그대로 되었습니다. ⑤ 예수께서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방법인 것을 믿고 행합니다. 조종사가 계기(計器)를 무시하여 악천후나 야간에 자신의 감각을 믿고 시계비행(視界飛行)을 하든지 관제사의 충고를 무시하면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조종사가 자신감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관제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계기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관제사의 지시처럼 계기와 같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그 권세는 절대적이므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접하며 자라나고 회당에 모여 성경을 읽고 듣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 백부장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상의 조건아래 살고 있습니다. 친구약 성경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성취된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훌륭한 모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처럼 모두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사랑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① 백부장의 마음에는 사랑이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병 고쳐 주기를 바라고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 고침 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백부장의 종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긍정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호감을 갖게 할 만한 처신을 하여 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백부장이 종에 대하여 마음을 쓰는 모습은 기이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의 신세란 실로 비참하였습니다. 헬라시대와 로마시대의 종들은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로마 법률의 입장에서 본다면 종이란 살아 있는 도구로 간주되어 있었습니다. 종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학대하거나 죽이는 것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서 그 생살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의 저술가 바로(Varro)가 농업에 관하여 쓴 것을 보면 농업의 도구를 셋으로 구분하였는데 언어를 가진 도구, 언어가 없는 도구, 소리 없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언어를 가진 도구란 노예를 의미하고, 언어가 없는 도구란 가축을 말하며, 소리 없는 도구란 운반 수레들이다." 하였습니다. 노예에게 짐승이나 마차와의 유일한 차이로 인정되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로마 저술가는 농부들의 재산 관리에 관한 기록에서 매년 자기의 재산을 조사하여 낡고 파손된 것들은 처분해 버리되 종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게 되면 밖에 내어 버려 죽게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자기 종을 취급하는 태도는 그 당시 사회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그의 종이 병든 것을 불쌍히 여기고 힘써 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청원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까지 동원하였습니다. 이럴 정도로 백부장은 그의 종이 병 고침 받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자기 종을 이토록 배려하는 이 백부장의 인간성과 인격은 당시의 관념으로 볼 때에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에는 이런 사랑이 내재하였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선민 유대민족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대인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② 백부장에게는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을 유추하여 신령한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도록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대하여 지적하신 '이만한 믿음'에는 예수님의 신성(神性)을 아는 지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대하여 지적하신 '이만한 믿음'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음을 아는 지식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대하여 지적하신 '이만한 믿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유념할 것은 백부장에게는 실용적인 '사랑과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모두 '이만한 믿음'과 아울러 '사랑과 지혜'를 가진 성도로서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